

에너지 정체가 지구의 사막화를 일으킨다

| 제임스 드메오 | 편집부 인터뷰 |

제임스 드메오(James DeMeo) 박사는 공간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관해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기후 조절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대학에서 가르치다 오르곤 에너지 연구센터를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 중인데, 세계적인 사막화와 기후 변화가 에너지 정체(block)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지는 빌헬름 라이히가 말하는 오르곤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의 결핍이 세계의 폭력과 인간마음의 사막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에 의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막화는 지구에 있어 인간의 암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미내사 라이히와 관련한 연구가 미국의 대학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사실, 환영받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를 인정 받으면 다른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도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은 아니라도 종종 아예 우리의 연구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내사 오르곤 에너지의 정체(停滯)와 사랑의 결핍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그것의 근거를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임스 드메오 대학생일 때 인간 폭력의 기원(human violence origin)에 대해 생각을 했었고 아무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 즉 라이히의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었고 대학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간 폭력에 관한 지도를 구성해봤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폭력에 대한, 세계의 폭력 성향과 사람들의 결과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라이히도 그랬지만 저 또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여성들의 사랑과 지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레 같은 관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모유수유를 안하는 지역들,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엄마와 아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필요한데, 모유수유는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릴 때 겪은 성적인 폭력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외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을 보았습니다. 처녀성의 문제, 즉 많은 문화에서 여자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한다는 터부 같은 것 말이죠. 라이히도 그랬지만 사랑이든 뭐든 폭력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억압되었을 때 사회도 폭력적으로 변함

니다. 노예제도, 카스트 제도, 중세 교회의 억압이나 군대의 공격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1,170여 부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60개가 넘는 변수를 조사했을 때 얻은 결론은, 어릴 때 사랑의 결핍과 폭력을 경험한 것이 성인이 되어 발현되고 그 결과 폭력적인 사회로 변한다는 것에 99% 이상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문화를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랑의 문제, 즉 사랑의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력적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매치가 된다는 말이죠. 아이들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여자들에게 성적인 억누름이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내사 지금 전쟁이 심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닐까요?

제임스 드메오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큰 충격을 받아도 소화해 내는데, 어떤 문화는 작은 충격을 받아도 나라가 엉망으로 변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억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사랑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이히가 제안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문을 보고 어떤 이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화를 냅니다. 이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0년간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여성 단체들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아이를 억압이 아닌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서 사랑을 하면 폭력적인 사회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구상에서 자연스러운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라는 것이지요.

미내사 에너지 블록이 사막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에너지 블록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제임스 드메오 굳이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계가 우려하는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하라 사막 근처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땅도 파괴되고... (지도를 보며) 여기서부터 생명 에너지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대기와 땅, 식물 등에 어떤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이 서로 공명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죠.

미내사 펄스pulse라는 것이 단순히 과학적인 파동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개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즉 식물을 잘라내고 파괴하면 식물의 파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식물의 역할이 줄어들고, 전체 지구의 조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펄스(파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그러니까 순환, 리듬 등이 포함됩니다. 정통 과학에서 펄스의 관점과 조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라이히는 생명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라이히의 발견에 따르면, 오르곤 축적기를 보면 습기가 많은 날보다 건조하고 맑은 날 에너지를 더 끌어당기고 흡수한다고 합니다.

미내사 슈만 공명Schuman resonance(지구의 주파수라고 알려진 7~8Hz)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제임스 드메오 오르곤 에너지에서는 몇 시간의 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슈만 공명은 초당 지구의 공명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르곤에 대한 것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의 호흡과도 같은 큰 공명, 리듬입니다.

그것은 실험적인 증명이 가능한데, 모든 피험자들에게 오르곤 축적기를 줍니다. 그것은 내부에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료에도 사용되고, 거기에 앉아 있게 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리듬이 빨라지고 피부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완되는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 이중맹검 실험을 통하여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미내사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이 책 오르곤 에너지 핸드북(2011년도에 발췌 소개 예정: 편집자 주)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미내사 에너지 블록이 사막화와 기상이변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보죠.

제임스 드메오 전체 공간에는 에너지가 차 있는데 이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긴 공간에서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버스터(Cloud Buster(드메오 박사가 기상실험에 사용하는 물대포)를 15분 정도 사용했을 때 연무(煙霧)가 낀 공기가 갑자기 맑아져서 멀리 보이게 됩니다. 먼지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맑아지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미내사 그런데 그것이 클라우드 버스터 때문인지 기상이 변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실험들이 계속 반복

될 때는 통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1970년대 이후로 계속 실험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어떤 나라는 3년 기근, 어떤 나라는 30년 기근이 있었는데 라히 실험으로 비를 내리게 했지요. 저는 이런 실험을 통해 오르곤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할 때 관계 당국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실험을 해야 합니다. 고비사막이나 중국에서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면 황사와 같이 사막현상의 영향이 한국에 미쳐 한국의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기상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내사 에너지 블록이 사막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데, 아직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임스 드메오 에너지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죽습니다. 에너지가 파동운동을 하지 않고 죽어 있는(정체되어 있는) 것을 블록이라고 하죠. 정체된 공기, 에너지를 블록이라 합니다. 에너지 블록이 몸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는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이 기상氣象像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버스터는 기상의 침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다든지, 기후가 정체되어 있는 곳마다 침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미내사 침은 인체의 경락을 알아서 어떤 경락에 놓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기상에서도 그러한 경로를 알고 있는 것인가요?

제임스 드메오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 제트 기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지구의 대기가 흐르는 것은 바로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 에너지블록이 있으면 그러한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이 있는 지역에 기근이나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는 가뭄, 많을 때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죠.

미내사 그러니까 비가 모이는 곳이 에너지가 모이는 곳인가요?

제임스 드메오 에너지의 질량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트 기류가 지나갈 때는 에너지가 아주 깃털처럼 부드럽게 볼텍스 형태로 흘러갑니다. 볼텍스가 바로 제대로 된 파동이 나타나는 형태인 것이지요.

폭풍도 제트 기류가 만드는 에너지의 패턴을 따라서 형성됩니다. 비구름, 폭풍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제트 기류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폭풍이 가이드 되는데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래 지상의 에너지 흐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에너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공의 제트 기류에는 에너지가 있지만 지상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없을 때는 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끌 때 밑에서도 따라가 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에너지 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쪽 해안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막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기상학자는 폭풍의 문이 닫혔다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때는 에너지 흐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는데 사막이 확대되면서 비 내림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현상은 사막에 의해서 에너지 정체가 일어나고 에너지 정체가 사막화를 일으키

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나 가뭄이 늘어나고 있죠. 사막도 몇 달 사이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습니다.

벌목과 그로 인한 화재, 유황 성분, 산업화로 인한 먼지구름Dust cloud이 사막의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 먼지구름이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곳에 가뭄이 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논할 때 제1의(Primary) 사막뿐만 아니라 제2의(secondary) 사막도 논해야 합니다. 제1 사막에서 대기를 통해 나쁜 에너지를 보내면 그것을 받은 곳이 또 사막화가 되지요. 정체된 에너지가 사막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내사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에너지가 대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까?

제임스 드메오 에너지가 죽은 흐름으로 바뀌면 그것은 깃털 같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물질과 같은 움직임으로 바뀌어,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정체된 죽은 에너지는 바람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 걸프전 때 기상 데이터가 작동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그때 단순히 더스트(하늘의 먼지)가 많다고 했지만 증명되지 않은 추론이었지요.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많은 논문을 봐도 그것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말하는) 더스트를 설명하기에는 더스트의 양이 부족합니다.

미내사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더스트는 일반 더스트는 아니군요?

제임스 드메오 더스트와 에너지 정체인 것이지요. 라이히의 이론에 따른 가설에 의하면,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오르곤 에너지가 정체되었을 때 전자기파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차 있던 에테

르와 우주에서 보낸 에너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도 정체가 되면 마찬가지로입니다. 블루로 보일 수도 있고 레드로 보일 수도 있죠.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사하라 사막을 보면 너무 여러 겹의 에너지가 보이는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더스트라고는 하지만 더스트로 설명을 할 뿐 사실은 정체된 에너지인 것입니다.

미내사 식물이 사라진 지상의 에너지가 정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임스 드메오 식물의 줄기를 자르면 생명에너지가 사라지고 공명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곳에 에너지 블록이 생기게 되지요. 예전에는 사하라가 초원이었어요. 그런데 몇 천년에 걸쳐서 사막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인체로 보자면 암이 전이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미내사 암이 전이되기 위해서는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사막화는 무엇을 영양분으로 삼을까요?

제임스 드메오 에너지 정체를 먹이로 삼지요. 즉 한 곳에 에너지 정체가 생기면 그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늘어가고 있죠.

미내사 정체된 에너지가 옮겨가는 것이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임스 드메오 옮겨간다는 것은 암이 전이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길게 보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공해, 무분별한 벌목, 가축 사육 등으로 에너지 정체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서로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6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내사 현재 기상학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요?

제임스 드메오 의학이 전문화되는 것과 같이(안과, 피부과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요즘 기상학도 전체를 보지 않고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만을 연구하고, 어떤 이는 중국의 고비 사막만을 연구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지요. 전체적인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쓴 《사하라시아Saharasia》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다음 호에 그 축약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미내사 단순히 말하자면, 몸에 암이 생기면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막화라는 것이 지구의 암과 같은 것인가요?

제임스 드메오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막화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미내사 그럼 이제, 오르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르곤 에너지의 구체적인 실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임스 드메오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오르곤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기氣나 프라나Prana와 같이 생명 에너지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도 생기生氣가 생물학의 일부분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보다는 지금 많은 이들이 라이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銀河 간에는 우주의 플라즈마, 암흑물질, 에너지와 같은 어떤 매개물이 존재한다고 얘기들을 하죠. 암흑물질dark matter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어서 그냥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은하를 살펴보면 그것을 둘러싸고 푸르게 반짝이는 에

너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메다 성운은 아주 푸르고 명확하죠. 그 근처에는 별이 없지만 블루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히는 생명 에너지(오르곤 에너지)를 블루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1,800년대 주장되었던 에테르라는 지구에 가득 찬 물질과 흡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르곤 에너지는 이제 현대 물리학과 매치되고 있습니다.

미내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임스 드메오 진공 튜브를 오르곤 축적기 안에 놓으면 푸른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축적기 안에서만 실험을 했는데, 어두울 때 단지 진공 튜브를 넣었을 때 전기와 상관없이 푸른색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표면이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고 말하죠.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에선 달의 사진을 파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컬러는 제외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죠. 만약 누구나 이런 오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신과학 저널 같은 데에 사진들이 더욱 많이 실리겠죠. 어쨌든 이것은 그냥 보통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도 푸른빛이 보입니다. 방사능을 측정하는 가이거 계수기Geiger Counter로 오르곤 축적기 안에서 측정하면 바깥보다 더 많은 방사능 수치를 기록합니다.

미내사 오르곤 축적기의 구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이런 구조를 띠면 오르곤 에너지가 집적된다는 것은 라이히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론이 있나요?

제임스 드메오 라이히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고,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축적)하는 데는 유리섬유fiber glass나 절연체 같은 물질이 적합합

니다. 커패시티Capacity를 방전해도 내버려두면 반동으로 다시 충전 charge이 됩니다. 그러한 원리와 같이 유리섬유를 서로 겹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오르곤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물질에 따라서 방출하는 물질이 있어요. 또 물질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와 집적하는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은 흡수와 방출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을 틈이 없습니다. 절연체가 정전기를 모으듯이 축적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르곤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하나는 방출하고 하나는 모으고 하는 것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형성되지요. 물리학적으로 이 에너지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더 광범위하고 심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오르곤 축적기의 가장 큰 유용성은 사람을 치유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축적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바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은 있는 것이지요. 축적기를 가끔씩 이용해도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우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암환자들이 자연의학보다는 주로 약물이나 수술에 의지를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축적기를 사용하면 병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적기가 기적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축적기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특수한 질병보다는 일반적인 질병, 즉 기 적이고 생리학적인 반응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었어요. 실제로 라이히는 오르곤 축적기를 통한 실험들을 토대로 병원을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죠.

미내사 현재 미국에 이 축적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많은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www.orgonics.com 참고). 저도 직접 만들지만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웃음). 축적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컴퓨터 등 주변에 방해되는(전자파를 주는) 물건들이 없어야 합니다.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하는 실험을 할 때 좋은 환경에서 해야만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를린의 한 의사는 축적기를 개인 사무실에서만 사용합니다. 병원 같은 외부 공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내사 축적기가 오르곤 에너지만 집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 끌어모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즉, 축적기가 특별하게 오르곤 에너지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임스 드메오 현재에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집약하는 것입니다.

미내사 그렇다면 굳이 축적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숲 속 같은 데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드메오 그런 곳에서 살아도 되지만 어떤 치료 효과를 내려면 축적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모으고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숲으로 돌아가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축적기를 한 시간만 사용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현재 드메오 박사는 60이 넘었음: 편집자 주)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오르곤 축적기에 1시간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좀더 에너지를 채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요.

미내사 얼마나 자주 그것을 사용하시나요?

제임스 드메오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한없이 채

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은 그것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하루종일 앉아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몸이 약한 사람들이죠.

미내사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임스 드메오 현재 인터넷을 보면 원래 라이히의 이론을 벗어나서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오르곤 축적기를 사용해보기를 권합니다.

미내사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제임스 드메오 감사합니다. (끝)

- 에너지 블록이 기상이변이나 사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폭력과 전쟁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글은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임스 드메오**(James DeMeo, Ph.D) | 제임스 드메오 박사는 1978년 설립된 오르곤 생물물리 연구소 이사이다. 캔사스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빌헬름 라이히의 사학적 발견, 생물물리학적 발견물을 연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또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에서 환경학과 화학을 연구했으며,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쳤다. 홈페이지: www.orgonelab.org